

4월15일 월요일

열왕기하 21장 유다왕 므낫세, 아몬

본장에 나오는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들어낸 최악의 왕이었고, 게다가 끔찍한 것은 가장 오래 55년을 통치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는 므낫세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에 무엇을 쌓았다고 하나요? (4절,5절,7절)

22장 유다왕 요시아의 행적

8세의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55년간의 므낫세왕의 폭정과 우상숭배로 파괴된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성전수리가 그의 첫 번째 행적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무엇을 발견하였나요?

23장 유다왕 요시아 시대의 부흥

본장은 요시아왕 시대의 부흥을 기록합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1-3절) 이러한 요시아 왕에 대해 25절에서는, "요시아와 같이 ( )을 다하고, ( )을 다하며, ( )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4장 유다멸망의 시작-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본장에는 유다멸망의 슬픈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 용사들이 잡혀가고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도 모두 바벨론에 약탈되는 일은 어느 왕때 일어났나요? (이 예언은 예레미야 22:24-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붕괴 및 회복의 메세지

본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붕괴되는 절망의 이야기지만,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기막힌 반전을 기록합니다. 일찍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 사면을 받은 왕은 누구인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암시합니다)

4월16일 화요일 

역대상 1장-2장 믿음의 눈으로 족보 읽기 (1)

아담에서 유다의 자손들까지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의 뿌리와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으로, 에스라가 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9장에는 아담에서 시작하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지 보여줍니다.

1장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장은 이스라엘(야곱)의 아들들과 유다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인물들의 아들들을 찾아 써 보세요.

1)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 셋(Seth)

2) 노아의 세 아들:

3) 아브라함의 두 아들:

4)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야곱)

3장-4장 믿음의 눈으로 족보 읽기 (2)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족보는 3장에서 다윗의 자손들(왕의 계보)을, 4장에서는 유다와 시므온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왕의 아들과 딸들 (1-9절)

2) ( )왕의 자손 (10-16절)

3) 포로시대 이후의 족보 (17-24절)

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망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끝난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분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손 안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4월17일 수요일

5장-6장 믿음의 눈으로 족보 읽기 (3)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5장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이고, 6장은 레위지파의 족보와 성읍들을 기록합니다.

1) 3장 1-2절에서 야곱의 첫째아들 ( )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를 범함으로써 (창세기 35:22) 장자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4)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 )에게로 돌아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계승되었습니다.

또한 주권자는 ( )에 속하게 되어, 유다지파에서 다윗과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어떤 방법과 힘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 요단 동편 지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그들은 어떤 죄를 범하여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나요? (5:25-26)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7장-8장 믿음의 눈으로 족보 읽기 (4)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7장은 요단강 서쪽의 여섯지파를 기록하고,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독자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이야기입니다. (7:20-27) 에브라임은 블레셋 가드 사람들과의 충돌로 두 아들 에셀과 엘르앗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 )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자식을 잃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과 원한을 아시고, 그것을 결국 브리아를 통하여 ( )를 주심으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7:27)

4월18일 목요일

9장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본장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귀환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사람들과 느디임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느디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막일꾼들이었는데, 주로 가나안 거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재건이었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나요?

10장 사울왕 가문의 멸망

9:35절부터 10장에는 사울왕의 족보와 죽음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 )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 )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고 있나요?)

11장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본장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됨(1-9절)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다윗의 용사 중 다음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부스 사람을 쳐서 쫓아낸 사람:  
2)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온 사람들:

12장 다윗의 용사들

본장은 다윗을 도와 다윗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한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사울을 거스르고 다윗을 따르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중 사울과 같은 지파인 ( )지파의 삼천명은, 혈통과 정보보다는 믿음의 가치를 보고 다윗을 선택하여 따랐습니다.(29절)

4월19일 금요일



13장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 (1)

본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기 위해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옷사의 일로 언약궤를 모셔 오는 일이 지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하여 주십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 )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14장 다윗왕 초기의 번성과 블레셋과의 전쟁

본장 8-17절에는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전투를 대할 때,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10절, 14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모두 응답하시고 지시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5장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 (2)

13장에서 선부른 언약궤 운반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본장에서 다시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모세의 율법의 따라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지시한 2가지는 무엇인가요? (12-15절)

16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

본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시)를 드린 것을 기록합니다. 이날 레위인들이 부른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시편에 들어갑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세요.  
1) 16:7-23절 : 시편 105편 1-15절  
2) 23-34절 : 시편 96편  
3) 34절 : 시편 136:1  
4) 35-36절 : 시편 106편 47-48절

4월20일 토요일

17장 다윗의 성전건축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대답

본장은 백향목 궁에 거하던 다윗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 )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 )하게 하리라."

18장 다윗의 승전기록

17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다윗은 이제 새롭고도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원들을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으로 ( )와 ( )과 ( )들을 만들었더라."

19장-20장 암몬과의 1차 전쟁(19:1-15절), 아람과의 1차 전쟁(18:3-8), 아람과의 2차 전쟁(19:16-19절), 암몬과의 2차 전쟁 (20:1-3) 블레셋과의 전쟁 (20:4-8)

18장-20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사건들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 )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8:6, 13절) 전쟁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